

운영위원회 회의 결과

심의 결과	원안과 같이 합의하기로 하다
회의 내용	◦ 재무회계팀장 : 성원보고(위원 총 14명 중 4명 불참하고, 10명 참석) ◦ 위원장(총장) :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음. ◦ 허장욱 위원(산학협력단장) : 재무회계팀장께서는 2021년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안을 설명해주기 바람. ◦ 재무회계 팀장 : 2021년 산학협력단회계 결산안(결산서 및 부속명세서 포함) 설명함. (배부된 회의자료 참고하여 설명) ◦ 허장욱 위원(산학협력단장) : 산학협력단 전망중 세입은 현재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현황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,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작성함. 회의자료에 대한 질문 및 검토의견 있으신지? ◦ 이현권 위원 : 인건비 중 부서별 1인 평균임금이 편차가 많은 이유와 신규채용 제한과 결원자 미채용 등을 통해 인건비를 억제하겠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 인건비 전망을 보면 계속 상승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? ◦ 허장욱 위원(산학협력단장) :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현 인원이 계속 업무를 한다는 조건으로 자료를 작성하였기 때문임. LINC+ 사업단 조직이 구성되어야 인원에 대한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지금 추진 중임. ◦ 재무회계팀장 :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와 중소기업공학건설팅센터는 인적구성이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로 주로 구성되어있으며, 연봉으로 계약하는 분들도 있어 다른 부서와 평균임금 편차가 큼. ◦ 지선구 위원 : 장애인고용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? ◦ 허장욱 위원(산학협력단장) :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방면으로 검토중임. 한 번 채용하여 계속 근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고민 중임. ◦ 위원장 : 대학도 마찬가지로 장애인고용이 쉽지 않음.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이 난제임. 이 부분은 대학과 협업해서 해결해 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음. ◦ 이용환 위원 : 기술이전 수익이 약 4천만원이고,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가 2억원정도임. 기술이전 수익을 올려도 미미한 정도로,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비용을 개선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됨. 출원 시 교수님들이 일부 부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됨.

- 지선구 위원 : 창의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되어 앞으로 간접비에서 충당되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. 또한 출원등록 건수로 인해 다른 사업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출원등록수를 줄이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음. 출원 시 교수님들 부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나, 연구비에서 출원등록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교수님들이 일부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상됨. 기술이전료 지급 시 출원등록비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 중임.
- 권오형 위원 : 특허에서 교수님과 산학협력단 배분 비율을 높이는 것보단 산업자문료에서 배분비율을 높이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됨.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고려해서 배분비율을 조정하는게 필요함.
- 지선구 위원 : 기술이전시 특허분석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수님과 산학협력단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음.
- 부위원장(부총장) : 과제기간이 남았는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교수님들을 위해 산학협력단이 공간 지원 등을 통해 과제를 지속 수행할 수 있게 하면, 간접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 같은데 명예교수가 되었을 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?
- 허장욱 위원(산학협력단장) : 명예교수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.
- 권오형 위원 : 간접비 현실화 방안은 언제부터 실현하는지?
- 허장욱 위원(산학협력단장) :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검토한 뒤 진행할 예정임.
- 지선구 위원 : 산학협력보상금을 낮게 지급될 때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음.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해서 진행하기 바람.
- 위원장 :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하는것도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되는건지?
- 지선구 위원 : 보상금을 적게 주겠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받아야되는 걸로 생각됨.
- 위원장 :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율 아래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건지 확인해봐야 할 사항임.
- 김귀곤 위원 : 미수금은 회계기간 때문에 발생한것인지 실제로 받지 못해서 지연되서 미수금으로 처리한건지? 전년도에 비해서 대손충당금이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?
- 김효정주무관 : 회계기간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한 부분과 실제로 받지 못해서 미수금으로 처리한 부분 둘 다 발생하여 미수금으로 처리함. 전년도 대손충당금은 회수가능성이 있는 금액까지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. 이번회계연도는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미수금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금액이 줄어들.
- 위원장 : 이상 더 질문 없어, 원안대로 가결하겠음.